

삼정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Channel

2017 July _ Vol.174



Cover story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균형잡기!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 아인슈타인

우리네 인생을 자전거에 비유한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일과 삶에서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 가지에만
몰두하다 보면, 다른 한 쪽의 균형이 깨지기 마련입니다.
일과 삶이 조화로울 때,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삼정KPMG는 구성원 모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다가오는 여름 휴가로
새로운 에너지를 찾을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Contents

July 2017 Vol. 174 삼정KPMG 뉴스레터.

건강한 성장

- 04 Issue Focus 2018년 고령사회 진입과 우리의 준비
- 06 Team Story 삼정KPMG BCS-ICG본부
- 08 Client+ 교보생명
- 10 Market Reader 국내외 핀테크(Fintech) 규제 동향
- 12 Expert's Advice IFRS15 국내 산업에 끼칠 영향과 방안 모색
- 13 맛있는 경제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 상식!



행복한 일터

- 15 Culture Relay 행복한 우리 본부 문화를 소개합니다!
- 16 인재양성소 GEP 7기 성적우수자, '영국 런던'으로 해외연수 가다!
- 20 KPMG Tour 박성옥 Analyst가 전하는 일본 미야코지마 여행기
- 22 Culture & Etiquette 다양성 속의 통일, 인도네시아
- 24 KPMG Story 2017 Partner KPMG Story Workshop 개최
- 26 행복충전소 일과 삶을 조화를 이룬 삼정인 스토리
- 28 Samjong News 삼정KPMG, 2017년 정기 파트너 인사 단행 외



발행처 삼정KPMG 기획 · 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보명C&I(02-2274-4545)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www.kpmg.com/kr

QR코드를 통해 삼정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018년 고령사회 진입과 우리의 준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2018년이면 고령사회로 진입된다고 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를 맞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및 고령세대의 경제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고령사회 현황 및 고령사회에 따른 뉴 시니어 등장 그리고 시니어 비즈니스 등에 대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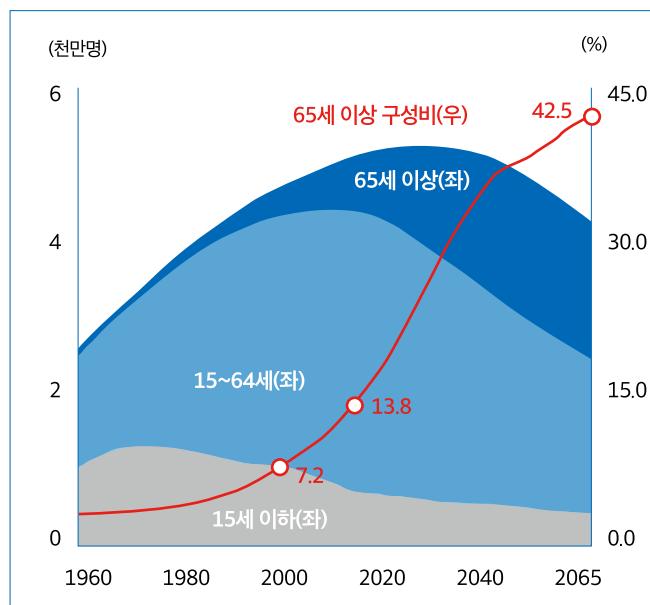
| 한국도 이제는 고령사회로

한국은 2018년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고령사회(aged society)로 진입할 예정이다. UN기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이 전체 인구의 8%를 초과하면 고령화사회, 14%를 초과하면 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의 인구 구성비는 2000년 7.2%에 불과했으나, 2017년 13.8%로 상승하고, 2018년 14.2%, 2065년까지 42.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은 현재 그 어느 나라보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생산가능인구 축소 현상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 고령사회에 부상하는 기회, 뉴 시니어

인구구조 변화라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및 미래 고령세대의 경제적 특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향후 고령사회의 주요 계층이 될 현재의 50대는 스스로를 부양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 여력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존 고령세대에 비해 소비 성향이 높고, 필수재적 소비보다 외식, 오락, 문화 등의 가치소비를 즐기는 성향이 뚜렷한 모습을 보인다. 이렇듯 넉넉한 자산과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건강하고 활동적인 성향을 가진 '뉴 시니어' 세대는 향후 핵심 소비 주체로 부상할 것이며,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거대 소비 시장 역시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시니어의 대다수가 남은 여생을 소일거리를 하며 보내

인구구조 변화



주요 국가별 고령화 현황

(년도, 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도달연도	고령화사회 (고령인구 7%)	2000	1942	1970	1932
	고령사회 (고령인구 14%)	2018	2015	1994	1972
	초고령사회 (고령인구 20% ↑)	2026	2036	2006	2009
도달연수	고령사회	18	73	24	40
	초고령사회	8	21	12	37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통계청

거나 집안에 갇혀 손주를 돌보며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뉴 시니어는 고소득기반의 경제적으로 안정된 소비여력을 갖추고 있고 자신을 위해 소비한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이들은 건강한 신체를 바탕으로 등산, 골프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며 자신만의 패션 코드를 갖고 외적인 젊음을 추구하는 데 적극적이다.

시니어 특징 변화

구분	기존 시니어	뉴 시니어
세대 특성	• 수동적, 보수적, 동질적	• 적극적, 다양성, 미래 지향적
경제력	• 의존적, 경제력 보유층 적음	• 독립적이며 경제력 보유층이 두터움
노년의식	• 인생의 황혼기	• 새로운 인생의 시작
가치관	• 본인을 노년층으로 인식	• 실제 나이보다 5~10년 젊다고 생각
소비관	• 검소함	• 합리적인 소비 생활
취미활동	• 취미 없음, 동일 세대간 교류	• 다양한 취미, 다른 세대간 교류
레저관	• 일 중심, 여가 활용에 미숙	• 여가에 가치를 두며 생활
여행	• 단체여행 선호, 효도여행 중심	• 여유 있는 부부여행, 자유 여행
노후 준비	• 자녀세대에 의존	• 스스로 노후 준비
보유 자산	• 자녀에게 상속	• 자신의 노후 준비를 위해 사용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고령사회 진입으로 기업은 어떤 준비 필요할까?

한국 사회는 1차 베이비부머 세대(1955~1963년생)가 주가 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력 소비자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5~10년 뒤에는 196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에 출생한 2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시니어 시장에 진입하며 시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앞으로 시니어 시장은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며 기업들은 이를 고려하여 장기적인 시각으로 시니어 시장에 접근해야 한다. 지금의 시니어를 고객으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중년층이 향후 시니어 소비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시니어 산업 현황 분석 및 미래예측을 기반으로 시니어 비즈니스 사업을 발굴해야 하고, 소비자 조사 및 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를 바탕으로 시니어 비즈니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기존 산업에 기반한 시니어 비즈니스 사업 발굴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의 틀을 벗어난 신규 시니어 비즈니스 사업 발굴에도 주력해야 할 시점이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 김광석 수석연구원

Tel. 02-2112-7438 E-mail. gwangsukkim@kr.kpmg.com

에너지 산업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전문가 그룹 삼정KPMG BCS-ICG본부

신재생 에너지는 신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로, 유가의 불안정과 기후 변화 협약의 규제 대응 등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바람이 불고 있다. 삼정KPMG Innovation Consulting Group(BCS-ICG본부)은 국내 에너지 사업과 관련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신재생을 포함하여 전력, 가스, 집단에너지, 기타 공공 유틸리티 사업 전반에 대해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변화 따른 대응 전략 필요해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에너지 정책 시행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에너지정책의 핵심은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이며, 세부 시행방안으로 원전과 석탄의 축소, 신재생과 천연가스의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6월 18일 고리원전이 중지됨에 따라 신에너지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정책변화로 인해 신규원전에 대한 기투자비 매몰, 전기요금 인상, 해당 지역 반대 등 에너지정책 변화는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장기적으로 미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주요 에너지정책 변화는 에너지 기업의 정책 수용성 및 사회적 합의를 위한 추가 연구와 보완적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정부가 재도입을 검토 중인 FIT 제도를 포함하여 신재생공급의무화제도(RPS), 친환경 에너지 세제, 에너지 원가산정 등 다양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전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경우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하고 최적화된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국내 발전사(500MW급 이상)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확대정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 이행을 위한 중장기 의무이행 전략 및 설비계획

이 필요하다. 또, 정부의 분산자원 확대 정책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또한 열수요 개발 등 중장기 전략의 정비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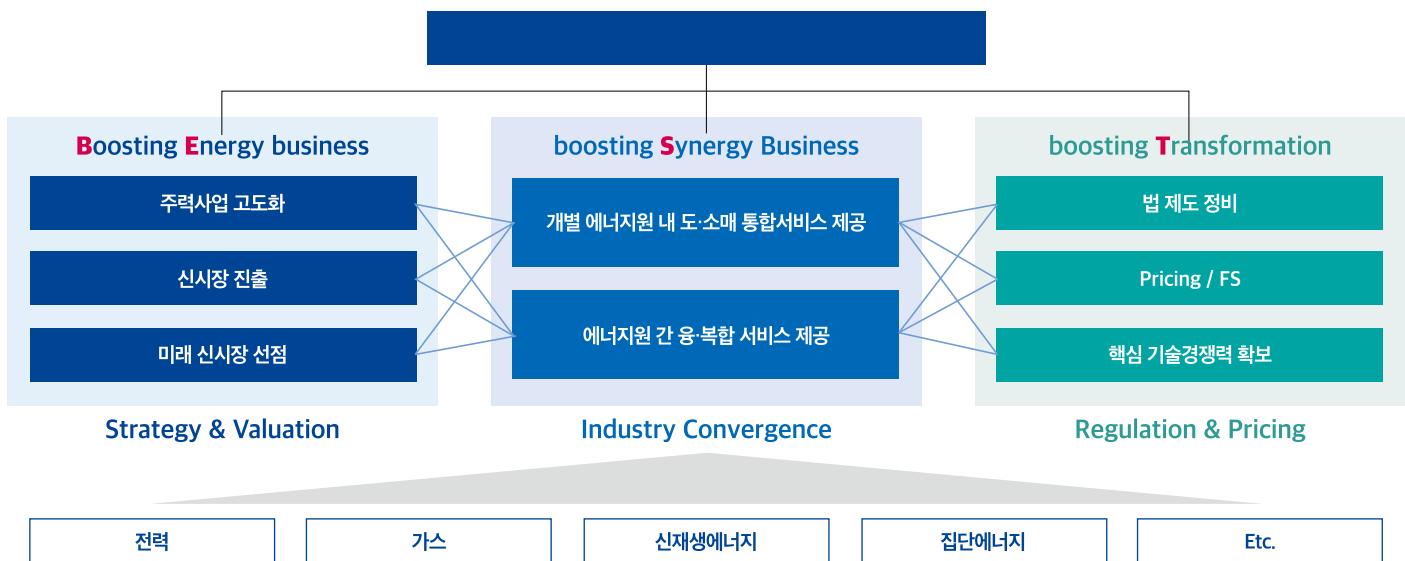
| 국내 최고의 'Energy Designer'

에너지 업계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비즈니스에서 최근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신재생 비즈니스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비즈니스가 유기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분석은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 전반의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에너지전략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보고 디자인해야 한다.

삼정KPMG BCS-ICG본부는 국내 최고의 에너지 분야 민간 싱크탱크로 20년 이상 에너지 전문 분야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컨설팅 역량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신재생, 가스, 전력 등 에너지 산업 각 분야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나홀로 전략으로의 질주가 아니라, 생기 있는 유기적 결합'으로 지속가능한 융합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삼정KPMG BCS-ICG본부 주요 서비스



‘에너지 산업 자문의 The Clear Choice’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 다할 것!

삼정KPMG BCS-ICG본부는 에너지 업계의 ‘The Clear Choice’로 거듭나기 위해 전지구적 정책 변화흐름에서 파생되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선점해 나갈 것이다. 기존 사업부문을 더욱 견고히 하는 한편, ICT 융복합 및 신재생 에너지와 ESS 연계 사업 등 민간 사업부문의 사업 진출 전략 수립부터 운영 프로세스 혁신 등 신규 서비스 제공으로 비즈니스 스펙트럼을 확장할 계획이다.

또한, 본부 구성원 개개인이 ‘Trusted Advisor’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재생, 가스, 전력 등 에너지 산업 분야별 Champion을 육성하여 각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각 분야 Champion 간 상호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업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 업계의 변화 속에서 굳건한 No.1 컨설팅 본부가 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BCS-ICG본부만의 차별화된 강점은 무엇인가요?

“국내 Big4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에너지 산업 전문 컨설팅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에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계량 전문가인 회계사와 전략 전문가, 선진 사례 인사이트 발굴에 특화된 벤치마킹 전문가 등 최상의 조합을 구현하여 타 컨설팅 조직과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장현국 상무이사(본부장)

Tel. 02-2112-6713 / E-mail. hyunkookjang@kr.kpmg.com

“본부 내 컨설턴트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샘솟는 창의력과 젊은 각각을 담을 수 있는 파릇파릇한 조직입니다. 팀원 개개인은 물론 본부 전체의 발전 가능성이 다른 어느 조직보다 높은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계사 출신 컨설턴트들의 계량적인 감각과 노하우 그리고 국내외 유수 대학에서 온 젊은 인재들의 샘솟는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차별화된 컨텐츠와 산출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김범조 이사

Tel. 02-2112-3758 / E-mail. bumjokim@kr.kpmg.com

“에너지 분야에 관심이 있는 개개인들의 역량을 바탕으로 각자 역할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상호 발전과 개인적 유대감을 함께 추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전략, 공대/경영, 석/박사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력 풀을 바탕으로 프로젝트별 최적의 결과와 보다 다양한 관점 및 방식의 어프로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산업 내 꾸준한 프로젝트를 수행해 온 국내 최고 전문가 집단이 본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김기현 S.Manager

Tel. 02-2112-0187 / E-mail. kihyunkim@kr.kpmg.com



존경받는 100년 기업으로 도약 중인 생명보험사, 교보생명

지난 60년 동안 한국 생명보험시장을 이끌어 온 대표 생명보험사 '교보생명'. 총자산 90조 원이 넘는 대형보험사로 회사 설립 이후 대주주가 바뀌지 않고 외부 지원 없이 독자적으로 성장해 온 금융회사이다.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생명보험의 한 길을 걸어온 교보생명은 이제 '존경받는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금융권 최고 수준의 신용평가 받아

교보생명은 전쟁의 상처로 피폐했던 1958년 8월, 신용호 창립자에 의해 '국민교육진흥'과 '민족자본형성'을 창립이념으로 설립됐다. 창립과 동시에 교육과 보험을 접목한 '진학보험'을 내놓으며 척박한 보험시장에 씨를 뿠렸다. 세계 어느 보험사에도 유례가 없던 이 상품은 당시 높은 교육열과 맞아 떨어져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배울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 됐다. 이를 발판으로 창립 8년 만인 1967년 국내 생명보험업계 정상에 올랐다. 1980년에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암보험'으로 본격적인 보장성보험 시대

의 막을 열기도 했다. 또한 업계 최초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 100% 적립, 계약자 이익 배당 실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교보생명은 한국 보험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교보생명은 대대적인 경영혁신과 내실 성장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국내 금융권 최고 수준의 신용평가를 받는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2015년 국내 생명보험회사로는 처음으로 세계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로부터 'A1등급'을 획득해 이를 3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저금리 장기화, 글로벌 경기침체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재무건전성과 리

스크관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2013년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 Ratings)로부터 'A+등급'을 획득한 후 이를 4년 연속 유지하고 있다. 실제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지표인 자금여력 비율(RBC)은 234.5%(2017년 3월 현재)로 글로벌 기준을 상회하고 있고, 자기자본이익률(ROE)도 2004년 이후 국내 대형 생보사 중 줄곧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보생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존경받는 100년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객, 임직원, 투자자, 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 공동발전을 추구하는 지속가능경영에 힘쓰고 있다.

‘상품·채널 혁신 No.1 생보사’가 되기 위해 고객 만족도 높일 것

교보생명은 지난해 ‘상품·채널 혁신 No.1 생보사’가 되겠다는 ‘비전2020’을 선포하고 생명보험의 본질적 가치인 고객보장을 확대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상품 혁신’은 탁월한 가치 경쟁력을 갖춘 상품/부가서비스 개발을, ‘채널 혁신’은 모든 고객접점의 서비스 역량과 품질을 혁신해 고객 만족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의미다.

상품·채널 혁신을 향한 방안으로 상품·서비스 가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채널 조직을 늘리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객의 선택 폭을 넓히고 보장급부 경쟁력을 높인 종신보험, CI보험을 개발하는 등 생명보험 고유의 영역인 가족생활보장 상품을 확대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고객의 재정적 보장과 심리적 안정이라는 ‘고객보장 가치’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가족생활보장 상품’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고객 니즈에 부응할 수 있도록 건강·의료·장기 간병 등 생존보장 니즈를 반영한 특화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현재 질병관리 중심의 헬스케어서비스도 건강증진, 질병예방, 사후 관리까지 확대했다.

디지털에 기반한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다양한 보험서비스에 접목하기 위해 핀테크 전문기업과 함께 정부의 블록체인 국책과제에 참여하고 있으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또한 금융과 정보기술을 융합한 핀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핀테크추진TF’를 신설하고 디지털에 기반한 새로운 고객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나눔 재생산’,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

교보생명은 생명보험사의 특징에 맞게 건강, 돈, 지식의 결핍으로 인한 삶의 역경을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춰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비영리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공헌 모델’을 만들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름다운재단과 손잡고 이른동이(미숙아)들에 치료비를 지원하는 ‘다솜이 작은숨결 살리기’가 있다. 출산 직후 입원치료비는 물론, 재활치료비(만 6세 이하)를 이른동이 출산가정에 지원하고 있다. 본인부담 병원비의 70%(최대 2,000만 원)가 지원된다. 이른동이 지원사업에 쓰이는 비용은 교보생명 재무설계사(FP)들이 자발적으로 십시일반 모금하면 여기에 회사 지원금을 보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매달 4천 명이 넘는 재무설계사들이 모금에 참여하며, 현재까지 2,382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이른동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행사와 홍보물 제작, 캠페인 활동도 벌이고 있다.

또한, 2003년부터 저소득층 환자에게 무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회복을 돋고, 취약계층 여성가장들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을 돋는 사회적 기업 ‘교보다솜이간병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2007년에 ‘다솜이재단’으로 전환돼 같은 해에 정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1호 인증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지난 30여 년 동안 한국스포츠를 이끌어 갈 체육 유망주를 발굴·육성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민간에서 개최하는 국내 유일의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로, 1985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7개 기초종목에 4,0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가 중이다.

모든 선수단에 교통비와 숙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선수와 학교에는 장학금도 준다. 지금까지 꿈나무체육대회를 거쳐 간 어린 선수는 12만 명이 넘는다. 이중 국가 대표로 선발된 선수는 350명에 이르며 이들이 국제대회에서 획득한 메달 수만 해도 140여 개에 달한다. 유도의 김재범·최민호를 비롯해 빙상의 이상화·심석희, 체조의 양학선, 수영의 박태환, 탁구의 유승민 등 꿈나무 출신 선수들은 글로벌 스포츠 스타로 성장했다.

이외에도 교보생명은 대산농촌재단, 대산문화재단, 교보교육재단 등 3개의 공익재단 운영과 함께 국민체육진흥, 문화예술 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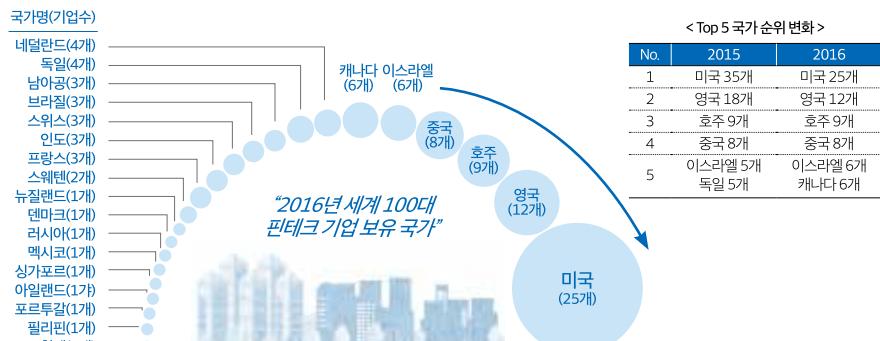
1, 2. 2016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에서, 수영과 육상 경기 모습
3. 사회적 기업 1호인 다솜이재단(간병봉사단)

국내외 핀테크(Fintech) 규제 동향

| 금융권의 미래 성장동력, 핀테크

전 세계적으로 핀테크 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금융권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 전 세계 핀테크 시장 규모는 약 800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벤처캐피탈 투자 규모 역시 급격하게 증가하여 2016년에 130억 달러를 상회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핀테크를 금융산업에 혁신을 가져올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혁신이 국가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핀테크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각국 정부는 금융규제 개혁, 핀테크 허브 구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가별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 보유 현황



|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의 핀테크 규제

글로벌 핀테크 산업은 전통적인 금융 강국인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최근에는 호주, 중국, 이스라엘 등이 핀테크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미국은 엄격하지만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비합리적인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한편, 영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최초로 도입해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 서비스를 규제의 제약 없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호주는 기업의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이 될 수 있는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핀테크 관련 규제를 최

핀테크는 금융(Financial)과 정보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터넷·모바일 공간에서 결제·송금·이체, 인터넷 전문 은행, 크라우드 펀딩, 디지털 화폐 등 각종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뜻한다. 이번 <Market Reader>에서는 국내외 금융혁신을 이끌고 있는 핀테크에 대한 국내외 규제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핀테크가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해본다.

소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새로운 플레이어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기존 금융사와의 경쟁을 통해 금융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하이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있다.

| 국내 핀테크 규제…韓 정부 2015년부터 핀테크 육성 방안 제시

앞에서 언급된 핀테크 선도국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는 경직적인 금융 규제 등으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이 다소 늦어졌다. 새롭게 등장하는 금융서비스와 기존 금융 규제와의 정합성이 충족되지 않은 점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금융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이 자칫 금융기관과 전자금융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2015년부터 본격적인 핀테크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IT·금융융합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이어 2016년 10월 '2단계 핀테크 발전 로드맵'을 통해 국내 핀테크 정책의 초점을 '육성'에서 '발전'으로 전환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도 2017년 2월 '신(新)산업 규제혁신 관계 장관 회의'에서 핀테크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가상통화/외환송금, P2P금융, 로보어드바이저 등의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 국내 핀테크 발전 위해 어떤 노력 필요하나?

각국의 핀테크 생태계는 다양한 규제 환경 속에서 금융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며 발달해왔다. 글로벌 핀테크 선도국의 규제 동향은 신성장 동력의 하나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나라에 좋은 벤치마크 사례를 제공해 준다. 국내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해 규제 당국은 해외 주요국의 제도를 반영해 공식적인 법적·제도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시키고, 여러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공정한 조율자(Coordinator)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기존 금융기관들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핀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단순한 서비스 공급자를 넘어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규제 당국, 전통적 금융기관,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소비자 등 모든 주체들이 합심해 건강한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할 때 비로소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Big Picture

벤치마크 분석 결과

법적·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핀테크 스타트업 역량 강화

이해관계자 간 협력관계 강화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CONTACT US

삼정KPMG 경제연구원

이광용 선임연구원

Tel. 02-2112-6611

E-mail. kwangyonglee@kr.kpmg.com

IFRS15

국내 산업에 끼칠 영향과 방안 모색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ASB)가 마련한 새로운 기업
수익 인식 기법, IFRS15가
2018년 1월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IFRS15가 무엇인지,
도입 시 우리 기업에 끼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또 이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 노상호 상무가
그 해답을 들려줬다.



삼정KPMG IM2(Industrial Markets 2)본부
노상호 상무

Q. 2018년에 시행되는 IFRS15는 무엇인가요?

A. 수익 인식을 위한 요건, 금액 및 시기를 결정하는 새 원칙을 제시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K-IFRS)입니다. IFRS15는 IFRS와 US GAAP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모든 수익거래에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견고하고 단일화된 Framework를 제시합니다. IFRS15는 수익 인식모형을 1단계 고객과의 계약 식별, 2단계 계약에 포함된 수행의무의 식별, 3단계 거래 가격 결정, 4단계 거래 가격의 배분, 5단계 수익 인식으로 구성됐습니다. 또한 개선된 공시 요구사항을 통해 보다 유용한 정보가 정보이용자에 제공됩니다.

Q. IFRS15 도입은 국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A. 사업의 성격이나 고객과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 해당 계약을 이행해 온 실제 관행에 따라 IFRS15의 영향은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우선, 매출인식 금액의 시기와 금액의 변동으로 기업의 성과측정지(매출, 영업이익, EBITA 등)가 달라지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의 계약이 다양한 의무를 포함하는 경우 수익거래는 계약의 구성요소를 세분해서, 구성요소별로 수익 인식의 시기와 금액을 결정해야 함, 두 번째, '변동대가'라는 개념이 도입되어 판매가격의 불확실성을 수익 인식 금액 결정에 고려해야 함, 세 번째, 수익을 기간에 걸쳐 인식할지 또는 일시에 인식할지를 결정하는 새 요건이 제시돼, 진행기준 매출이 인도기준으로, 인도기준 매출이 진행기준 매출로 바뀔 수 있으며 일시에 인식되는 매출도 그 인식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영향은 IFRS15 적용을 위해 회사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수행의무를 세분화하고, 이에 대해 전체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추정치의 변동을 반영해 가는 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또,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그 증거를 축적하기 위해 시스템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국내 기업들이 준비해야 할 IFRS15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요?

A. IFRS15의 도입은 단순히 회사 재무제표의 변화만을 가져오는 회계 이슈가 아니라 기업의 영업환경에 변화를 가져오는 비즈니스 이슈입니다. 2018년 의무도입을 불과 6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도입영향 분석조차 수행하지 못한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업들은 수익 유형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파악하기 위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검토와 영업활동의 관행에 대한 분석을 법무/영업/개발부서와 같이 전사적으로 수행하여, 전산시스템 및 업무프로세스의 변경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2017년 재무제표 주석에 IFRS15 도입에 따른 사전영향 공시와 2018년 새로운 수익 인식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공시를 위해서 결산체계를 완비해야 합니다.

알면 더 좋은 시사·경제상식!

<맛있는 경제>에서는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시사상식 용어, 신조어 등을 소개한다. 이번 호에서도 다양한 시사 용어를 함께 배워보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파리협정(Paris Climate Change Accord)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오바마 前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체결됐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C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많은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급변하는 기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정하는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도록 했고, 미국은 NDC로 2024년 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고, 이로써 세계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지연되는 등 파리협정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여있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카페인 우울증

대표적인 SNS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 글자에서 비롯된 신조어로, SNS에서 타인의 행복한 일상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우울함을 겪는 것을 뜻한다. 시장 조사기관 DMC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람들은 하루 평균 PC로는 32.3분, 모바일로는 43.9분 정도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SNS 이용시간이 늘수록 만족감까지 느는 것은 아니었다. 한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 따르면 병원을 찾는 10~20대 환자 10명 중 5명 이상은 'SNS로 인한 우울감'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4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대학교 연구팀은 '페이스북을 오래 사용할수록 우울감을 쉽게 느끼고 자존감도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출처: SBS 뉴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광풍! 3,000달러 넘어 역대 최고치 기록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지난 6월 11일에 3,000달러를 돌파했다. 비트코인은 올해 200%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고, 6월 들어서만 30%의 상승세를 보였다. BKCM 브라이언 켈리 CEO는 비트코인 강세장이 이제 시작돼 몇 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교환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고, 다양한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을 대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에 투자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비트코인 가격 추이



행복한 일터

Culture Relay

인재양성소

KPMG Tour

Culture & Etiquette

KPMG Story

행복충전소

Samjong News



행복한 우리 본부 문화를 소개합니다!

젊고 활기찬 청춘본부, B&F3본부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삼정KPMG. 이번 <Culture Relay>에서는 새롭게 각 본부의 문화 혹은 특색 있는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 첫 번째 순서는 B&F3본부이다. 젊은 본부원들로 구성된 B&F3본부는 활기차고 생기가 넘쳐, 이른 바늘 푸른 '청춘본부'이다.



1



2



3

감동 그 자체, 본부장이 직접 손으로 쓴 생일 카드!

B&F3본부는 3년간 생일인 본부원에게 직접 손으로 쓴 생일 카드를 우편으로 전하고 있다. 매월 그 달의 생일자를 위해 생일 카드를 쓰고, 편지 안에 가족 혹은 연인과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표도 함께 동봉하여 보낸다. 양예나 Manager는 "손편지 를 쓰는 게 어색해진 시대에 본부장님께서 본부원의 생일을 위해 펜 을 들고 축하카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는 것 자체가 감동인 것 같아요. 특히, 형식적인 축 하 메시지가 아닌 각 본부원을 생각하고 작성해주신 메시지라 더욱 감동으로 다가와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권영민 본부장은 "바쁜 와중에도 생일인 본부원을 떠올리며 생일카드를 작성하기에, 본부원에 대한 애정도 생기고 더 정성스럽게 예쁜 글씨로 축하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본부원들 한 명 한 명과 더 소통할 기회도 생기는 것 같구요."라고 말했다. 또한, B&F3본부 PPC Officer 최재혁 이사는 "생일 축하 공지 메일도 진행해,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며 소소한 선물도 나누고 친근한 정을 쌓고 있다"고 전했다.



여성 회계사 모임으로 비전 Up, 스트레스 Down!

B&F3본부는 동기부여 및 비전을 제시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여성 회계사 모임을 2012년부터 매 분기마다 진행하고 있다. 여성 회계사 모임의 리더, 김경아 S.Manager는 "남자 회계사들은 업무 이후 가볍게 술 한잔하며 교류하는 편인데, 사실 여자 회계사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성 회계사들끼리 모여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비전도 공유하도록 당시 본부장님께서 제안해주셔서 배세윤 이사님을 주축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모임마다 본부 내 파트너, 이사님 1명씩 초대하여 회사 이야기, 또는 여성 회계사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고, 개선하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또, 박현진 Senior은 "평소 남성 회계사들과는 얘기 하지 못한 여성 회계사로서의 고민 등에 대해 서로 공감하며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아요!"라며, 여성 회계사 모임을 통해 법인 생활에 활력을 얻었다고 한다.



1. 권영민 본부장과 PPC Officer 최재혁 이사

2. FY17 본부 워크숍 현장

3. 젊고 활기찬 B&F3 본부원들

GEP 7기 성적우수자, ‘영국 런던’으로 해외연수 가다!

지난 6월 15일, 삼정KPMG 본사 Purpose 회의실에서 ‘GEP 7기 성적우수자 해외연수 결과 발표회’ 시간을 가졌다. GEP 성적우수자들의 행복했던 2주간의 해외연수 스토리와 함께 삼정KPMG만의 차별화된 Junior 3년 집중 육성 프로그램인 ‘GEP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글로벌 인재로 한 걸음 더! ‘영국 런던 연수’

지난해 9월, ‘GEP 7기 우수자 시상식’이 FY16 신입 회계사 입문 교육이 한창 진행되던 인천 무의도에서 열렸다. 삼정KPMG는 이 날 성적우수자로 선정된 총 10명의 삼정인에게 글로벌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5월 8~20일, 2주간의 영국 런던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했다. 해외연수 기간에 GEP 7기 성적우수자들은 런던 어학원에서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과 함께 어학 수업을 듣고 어학 능력을 키웠으며, 오후 시간에는 어학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Activity를 선택하여 영국의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법인에서 지원하는 London Theater Trip을 통해 뮤지컬의 본고장, 런던에서 <맘마미아>를 함께 관람하고, KPMG London Office Tour로 KPMG UK의 업무 환경 및 문화를 경험했다. 주말에는 자유롭게 런던 근교 또는 파리 등으로 여행을 다니며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휴식을 즐겼다. 한편, 해외연수 결과 발표회 현장에서 GEP 7기 성적우수자들은 “이번 해외연수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또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삶의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며, “GEP 대상자인 후배 회계사들이 법인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GEP 제도에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Global Elite Program’이란?

‘Global Elite Program(GEP)’은 Junior 3년 집중 육성 프로그램으로 삼정인이 갖춰야 할 Technical Knowledge, Professionalism, Global Mind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Learning & Development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감사 직무 교육 성적과 더불어 한공회 연수 성적, 업무 평가 등을 바탕으로 평가하는 GEP를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삼정인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삼정KPMG 해외연수’ 기회 잡을 삼정인은 누구?



GEP 성적우수자

본부장 추천
우수 인재S. Manager
승진자 전원EF 영어 프로그램
최우수 학습자

*해외연수 기회뿐만 아니라, Global Mobility 프로그램인 GO(Global Opportunities)로 해외 파견하여 경력 개발 및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잡으세요.

찰칵! GEP 7기의 영국 런던 해외연수 Photo Story



1



2



3



4



5

4, 5, 6, 7. 런던 어학원에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과 영어 수업도 하고, 오후에는 다양한 Activity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8

9

11. 감각적인 인테리어와 쉴 공간이 많아 자유로웠던 KPMG London Office

12. 영국을 대표하는 런던아이
13. 영국 런던의 템스강에 놓여 있는 다리, 티워브릿지



10



13



들어볼래? 우리가 경험하고 느낀 영국 런던 해외연수!

GEP 7기 성적우수자들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영국 런던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2주 동안 낯선 곳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느낀 이들의 해외연수에 대한 소감을 들어본다.

유정하 S.Senior(Domestic Tax1)

회사가 주는 선물!



회사를 다니면서 2주 넘게 해외연수 혹은 여행을 가기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GEP 성적우수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축구경기, 뮤지컬, 박물관 등을 다니며 견문도 넓히고 동기들과 좋은 추억도 쌓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KPMG London Office Tour를 하면서는 제가 기준에 갖고 있던 회사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었을 정도로, 시설이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배 회계사님들도 꼭 GEP 성적우수자에 선정되셔서 노트북은 잠시 덮어두고 회사가 주는 값진 선물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강승완 Manager(Domestic Tax1)

GEP에 도전해 보세요!



런던에서의 일상은 정말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의 기숙사 생활, 다양한 국적을 가진 외국인과의 영어 수업, PUB에서의 즐거운 시간 등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을 남겼습니다. 무엇보다 타지에서 저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난 4년간의 범인 생활을 되돌아 볼 수 있었고, 앞으로 KPMG Career를 이어나감에 있어 소중한 동력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GEP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인 만큼, 후배님들께서도 꼭 소중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이태환 S.Analyst(Domestic Tax1)

평생 잊지 못할 추억, 감사해요!



런던에서의 2주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우선 런던 어학원에 다닌 것. 다시 학생이 된 기분이었고, 사실 런던 어학원이 아니었다면 다른 외국 친구들과 대화할 일이 거의 없었을 텐데, 외국 친구들이 공부하는 모습과 함께 서로 얘기를 나누면서 많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런던 시내를 걷기만 해도 마냥 즐거웠고, 잘 몰랐던 동기들과 친해지게 된 것도 좋았습니다. KPMG London Office Tour는 글로벌 KPMG는 어떤지 조금이나마 엿볼 수 기회였고, 비록 일하는 공간이지만 자유로운 휴게 공간과 카페테리아를 최대한 배치하여 직원들의 편의를 배려한 것과 미래 세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도 당장 오늘의 내 일만이 아닌 조금 더 나은 삼정KPMG가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 싶네요.

양슬기 S.Analyst(Domestic Tax1)

글로벌한 시각을 갖고 비전에 대해 고민해본 시간



런던으로 출발하던 날에 느꼈었던 기대와 흥분이 아직 잊혀지지 않습니다. 런던 어학원의 어학 프로그램도 유익했지만, 뮤지컬, 축구 등 현지 문화와 생활을 통해 글로벌한 시각을 갖게 되어 소중한 경험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연수 기간 중 방문한 KPMG London Office에서는 감사 서비스와 재무적 자문을 넘어서 고객사가 당면한 문제에 있어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도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통해서 향후 한국의 회계법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연수 기간 중 타지에서 맞이한 생일을 쟁겨 준 동기들과 함께한 추억 또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기회가 더 많은 삼정인에게 주어지면 좋겠습니다.

강태현 S.Senior(TP)

성찰의 기회이자 삼정인으로서 자긍심을 갖게 되었어요



영국뿐 아니라 전 세계 나라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교류할 수 있어서 다양한 지역과 문화에 대해 간접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또, 각자의 영어 실력에 맞춰 Class가 배정되기에,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편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져 영어에 대한 자신감도 불었네요. 이외에도 KPMG London Office 방문, 여행 등으로 영국에서 머문 2주는 삼정KPMG에서의 지난 3년 반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이자 자긍심을 갖고 앞으로의 법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준 동기부여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값진 경험으로 함께 일하는 삼정KPMG 구성원들에게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S.Senior(Domestic Tax1)

동기들과 또 아내와 함께 만든 잊지 못할 추억



이번 해외연수를 통해 얼굴도 알지 못했던 동기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추억을 쌓고 교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KPMG London Office를 방문하면서 최신식의 건물과 인테리어, 쾌적한 업무환경 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해외연수 중 2번째 주에 아내가 런던으로 와서 관광지와 공원, EPL 축구경기장 등 많은 곳을 함께 여행하였습니다. GEP 후배님들도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좋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김기홍 S.Senior(IGH)

뜻 깊은 Day trip



2주간 런던에서 주말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에든버러, 파리 등으로 떠난 동기들도 있지만 이태환, 강태현 회계사와 함께 런던에서 주말을 보내기로 했고, 하루를 현지 여행사인 Golden Tours를 이용하여 원저성과 스톤헨지, 옥스포드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3곳은 모두 런던 근교에 위치해 있고, 잘 알려진 곳이라 런던을 여행할 때 많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세 곳을 방문하니, 자유여행으로는 알 수 없는 사실과 세 곳과 관련된 영국의 역사도 간략하게 들을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박남진 S.Senior(B&F2)

영국 문화를 체험하고, 동료애를 느꼈던 해외연수



이번 GEP를 통해 가보지 못했던 영국에 갈 기회가 생겨, 설렘을 안고 출국했던 게 엊그제 같습니다. 2주간의 연수 동안 다양한 영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고, 동기들과의 동료애를 통해 타지에서의 외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2주가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서 아쉽고 후배들도 GEP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력도 개발하고, GEP 성적우수자로 선정되어 해외연수 기회도 얻으시기 바랍니다.

김 참 S.Analyst(Deal Advisory1)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기억될 것



런던 어학원에서의 열정적인 선생님 및 세계 각국의 다문화권 학생들과 나누었던 유익한 대화의 시간들, 오픈되고 쾌적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근무하는 KPMG London Office 내 삼정KPMG 분들과 나누었던 해외파견 이야기들은 해외에서의 KPMG에 대한 위상 및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문화와 이색 볼거리 및 관광지들에서 동기들과 함께했던 시간들과 경험들은 3년 넘게 삼정KPMG를 근무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들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윤소정 S.Senior(ICE1)

미래를 그려보고 새로운 꿈을 갖게 한 시간



2주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즐길 거리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KPMG London Office는 직원들을 배려하여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기회가 된다면 Global Mobility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한 번 런던에 가고 싶습니다. 이번 연수는 저에게 있어 앞으로 법인에서의 미래를 그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GEP 8기에는 더 많은 후배 분들이 선발되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Deal Advisory 2본부 박성옥 Analyst가 전하는 일본 미야코지마 여행기

이번 여름 휴가는 일본의 몰디브 '미야코지마' 어때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본의 오키나와 남쪽으로 300km에 위치한 섬, 미야코지마. 생소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꼽을 때 꼭 이곳의 해변이 등장한다고 한다. 일본의 하와이 혹은 몰디브라 불리는 이 아름다운 섬을 다녀온 박성옥 Analyst가 삼정인을 위해 생생한 여행 후기를 들려준다.

오키나와 현 미야코지마 여행 코스

◆ 미야코지마 북부

스무바리식당
(스무바리소바, 문어덮밥)

유기시오제염소
(소금 뿌려 먹는 아이스크림)

이케마섬 · 해중전망공원 · 스나야마해변 ·
미야코지마 시내(미야코규)

◆ 미야코지마 남부

이무가마린가든
(1시간 트래킹)

히가시힌나자키
(등대)

요시노해변
(스노클링 명소)

이라부섬

요나하마에하마해변
(일몰)

시기라 황금온천
(일본 최남단 온천)

숨은 보석 같은 휴양지, 미야코지마

일상에 지쳐 있던 올 봄, 친구들과 함께 재충전을 위해 휴양지를 찾던 중에 우연히 미야코지마를 알게 되었어요. 푸른 하늘과 바다가 아름다워 일본의 '몰디브' 혹은 '하와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오키나와 근처의 섬이에요. 1년 내내 온화한 날씨로 산호 바다 속에서 스노클링과 다이빙을 즐기기도 좋고, 해안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어 드라이브를 하기에도 좋은 곳이에요. 무엇보다 오키나와에서 비행기로 40분 거리로 멀지 않아 쉽게 다녀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키나와 섬을 많이 찾는 반면에, 이곳은 일본 본토 사람들만 찾기에 조용하고 여유로운 곳이에요. 그 덕분에 친구들과 한가로이 휴양을 즐기다 올 수 있었네요.

미야코지마의 베스트 장소 3

① 탁 트인 바다를 바라 볼 수 있는 도시 공원 '히가시헨나자키'

회장품 브랜드 미야 광고에서 고준희가 투명한 바다 위에 서있던 곳, 히가시헨나자키는 일본 도시 공원이다. 100선 중 하나로 선정되어 있으며, 미야코지마의 최동단에 위치하고 길이 약 2km, 폭 최대 160m, 해발 약 20m의 평탄하고 길다란 반도 곳이다.

좌우는 깎아지른 절벽으로, 선단에는 새하얀 등대가 서 있고 바다에 인접한 절벽에 세워져 있어, 등대 전망대에서는 360도의 파노라마를 즐길 수 있다. 등대에 올라가려면 따로 500엔을 지불해야 하는데, 등대에 올라 바라볼 수 있는 끝없는 바다와 길쭉하게 뻗어있는 곳의 모습은 그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의 절경이다.

②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요나하마에하마 해변'

7km의 넓고 순백의 모래사장과 투명하고 에메랄드빛 바다가 끝없이 펼쳐진 요나하마에하마 해변은 일본의 가장 아름다운 해변 1위에 선정된 곳이다. 아름다운 곡선의 쿠리마 대교와 쿠리마 섬을 뒤로 떨어지는 해를 보고 있노라면, 왜 이 섬이 동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라고 불리는지 실감하게 된다. 이 드넓은 해변에 사람도 많지 않아, 온전한 나만의 휴양을 원한다면 강력 추천한다!

③ 첫눈에 반해버린 에메랄드빛 '스나야마 해변'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우두커니 서 있는 암석터널이 유명한 스나야마 해변의 백미는 바로 처음 해변을 접하는 순간이다. 스나야마 해변에 가기 위해서는 주차장에서 출발해 작은 언덕을 하나 넘어가야 하는데, 언덕을 넘는 순간 큰 키의 수풀 사이로 보이는 에메랄드빛 해변은 모든 이의 감탄을 자아낸다. 스나야마 해변의 마스코트인 암석터널을 배경으로 일몰을 감상하는 것도 하루를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이다.



1. 히가시헨나자키 등대에서 바라본 전경
2. 요나하마에하마 해변의 일몰
3. 스나야마 해변 초입

미야코미자 여행 꿀 Tip



1. 미야코지마는 휴양지이기에 리조트 주변에는 식당이나 술집이 많지 않다. 그래서 항상 'Maxvalu'라는 마트에서 안줏거리를 사곤 하는데, 8시가 넘으면 떨이판매를 시작하기 때문에 싱싱한 사시미와 스시를 반값에 살 수 있다.

2. 미야코지마는 일본 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연평균기온 23도로 매우 온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다. 3월만 되어도 한낮에는 반팔을 입어도 될 정도이고 3월 말부터는 바다에 들어가도 춥지 않다. 스노클링이나ダイ빙을 즐기려면 4월부터 10월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최적이다.

직항노선이 없어, 환승 하다

비행기 놓칠 뻔했던 아찔한 추억!

미야코지마는 직항노선이 없기 때문에 가장 손쉬운 방법은 오키나와 나하공항에서 일본 국내선으로 갈아타는 것이다. 각종 정보를 취합한 결과, 나하공항의 국제선과 국내선이 그리 멀지도 않고 사람도 붐비지 않아, 1시간 20분의 여유라면 충분히 환승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웬걸! 인천공항 이륙부터 20분 이상 지연되더니 나하공항에 다와서는 관제탑의 착륙 신호를 기다린다며 공항 위를 선회하기 시작했다. 무사히 착륙하고 밭이 육지에 닿는 순간 짐 찾는 곳까지 달려갔지만, 이미 미야코지마행 비행기는 이륙 20분 전이었다. 공항의 일본인 직원은 일본어 조차 못해 더욱 멘붕에 빠진 나를 붙잡고 본인 일처럼 무전기로 여기저기 연락을 해주었다. 비록 그가 나에게 들려준 대답은 '당신의 비행기는 이미 탑승마감을 했어'였지만, 나를 진정시킨 후 항공사 직원을 불러 지연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다음 비행기를 추가요금 없이 탑승하게 해줬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아찔하다.

미야코규와 시원한 오리온 맥주 한 잔!

미야코지마에서만 먹을 수 있는 미야코규는 미야코지마산 소고기로, 주로 흑우를 사용한다. 미야코지마에는 미야코규 맛집이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밥을 먹는 건 불가능하다. 이 작은 섬에 음식점들이 붐비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음식점들이 몰려있는 거리가 이 섬의 유일한 번화가임을 생각해보면 그리 이상한 일도 아니다. 우리는 야기니쿠야라는 가게에 갔는데, 8시가 넘은 시간임에도 죽지 않은 가게에 딱 한 테이블만 비어있었다. 비록 우리 입맛에 익숙한 양념갈비만큼은 아니었지만 일본답게 정갈하고 깔끔한, 고기 고유의 감칠맛을 느끼기엔 부족함이 없었다. 거기에 오키나와 지역 맥주인 오리온 맥주 한 잔이면 금상첨화이다!

다양성 속의 통일, 인도네시아

2억 5천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 대국, 인도네시아. 무엇보다 300여 종족이라는 다양한 종족이 살고 있고,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기에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표어를 만들어 사용하는 나라이다. 각 종족의 전통과 문화를 인정하면서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가는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에티켓을 오동규 S.Manager의 소개로 알아보자.



한 달간 금식하는 이슬람교의 종교의식 '라마단'

인도네시아 국민의 80% 이상이 이슬람교로, 금식하며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라마단(Ramadan)이라는 종교의식을 갖습니다. 라마단은 한 달 동안의 금식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해가 떠 있는 시간에 물을 포함한 어떤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금식을 하고 저녁 6시부터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고 비로소 식사하는 것을 '부까 뿌아사'(Buka Puasa, Break Fasting)라고 부릅니다. 이는 마호메트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가르침을 받은 기간 동안 일반인들도 일종의 고행을 하며 종교적 신념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임산부, 노약자 및 강도 높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금식에서 제외되지만, 일년 중에 라마단이 아닌 다른 기간 동안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무슬림이 아니더라도 공공장소에서 음식을 먹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고, 이 기간 중 일부 식당에서는 바깥이 보이지 않게 커튼을 쳐서 음식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 간의 위화감을 없애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국 기업을 비롯한 많은 외국 기업들도 인도네시아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로 저녁 6시에 '부까 뿌아사'에 동참하여 직원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 르바란

금식 기간이 끝나면 비로소 인도네시아 최대의 명절 '르바란'이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2주일의 휴가를 쓰고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과 풍성한 식사를 함께 합니다. 공식 휴일은 단 이틀이지만 대국의 특성상 정부에서 3일의 권장휴무를 선언하여 멀리 사는 가족들이 모두 모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일반 기업의 휴무를 장려하고자 공무원들은 연차에서 차감 없이 3일의 휴가를 받곤 합니다.

르바란 때 고향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양손에 선물을 가득 가지고 가는 것이 풍습이라 르바란 전 소비가 급증하고 집에 갈 때 좋은 차를 타

이것만은 꼭! 인도네시아 Etiquette Plus+

- 1 원손은 불결하고 부정한 손이라고 생각하기에 원손으로 사람을 만지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행위는 금기 사항입니다. 원손은 회장실에서만 사용하며, 다른 사람과 물건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오른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 2 이슬람교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돼지를 더럽고 불결한 동물이라고 생각해서 먹지 않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죽은 동물의 고기, 피, 돼지고기는 나쁜 신들에게 바치는 제물로 구분하여,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꺼리기에 일상 대화에서도 돼지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 이 좋습니다.

고 가려는 사람들 심리로 중고차 가격이 급등했다가 르바란 후 되파는 차량으로 가격이 폭 꺼지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르바란에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고 많게는 한 달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비행기 티켓 가격은 평소의 1.5배에서 2배 까지도 올라가고 그나마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와 업무를 할 때는 라마단과 르바란 기간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출장을 오면 한식당이 모두 닫고 회사도 닫아 허탕을 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동료들과 회식 中 2. KPMG 인도네시아 사무실에서 동료들과 함께 3. 별리 여행 중에 가족 사진 찰칵!

온화하고 관대하며 종교적 신념이 강한 사람들

따뜻한 기후덕인지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성을 지녔습니다. 오래전부터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된 탓도 있겠지만 나라가 크다 보니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문화에 관대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관대한 모습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간 약속에 관대합니다. 수도인 자카르타의 경우 교통체증으로 약속장소에 늦는 일이 허다합니다. 일단 차가 막하면 30분 거리를 2시간 이상 걸려서 가야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교통체증 탓인지 약속 시간에 조금 늦는 것은 다들 그러려니 합니다. 한번은 고객사와 약속이 늦을까 노심초사하며 겨우겨우 약속장소에 도착한 적이 있었는데 KPMG 직원을 비롯하여 고객사 어느 누구 약속장소에 오지 않아 황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수에도 관대합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화를 내거나 타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은 무식하고 무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 혼을 내고 책임을 묻기보다는 조용히 불러서 사정을 듣고 주의를 주는 식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외국인들 눈에는 종종 무책임하게 보여 여럿 앞에서 시비를 가지고 질책을 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자에게 이는 큰 창피이기 때문에 나중에

안 좋은 마음을 품고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직원은 팀원들 앞에서 혼난 사실에 양심을 품고 회사를 퇴사하면서 투자청과 법무부에 민원을 넣어 회사가 조사를 받은 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인사담당자나 경영진은 잘했을 때 칭찬을 하고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리더십을 보여야지 잘못한 사람에게 엄한 리더십을 보였다는 반감을 사기 십상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따뜻하고 착한 성성을 지니고 있지만, 종교적인 믿음에 따른 과격한 단체행동이나 목숨을 희생하는 일 또한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신념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착하고 유순하다고 쉽게 보면 큰일나는 곳이 인도네시아입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자카르타 주지사가 얼마 전 이슬람 무시 발언을 한 것으로 오해를 받아 재선에 낙선하고 실형까지 구형받는 사건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CONTACT US

인도네시아 KOREA DESK 오동규 S.MANAGER

Tel. +0812 8939 8938 E-mail. Donggyu.Oh@kpmg.co.id

Global Etiquette



3 인도네시아에서는 대화 도중에 허리에 손을 얹으면 화가 난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삼가야 합니다. 또한 정치, 종교, 종족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4 호텔에서 팁을 주는 것도 뇌물이 아닐까? 의심할 만큼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에 오해를 살 수 있는 선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대방을 잘 알기 전까지는 농담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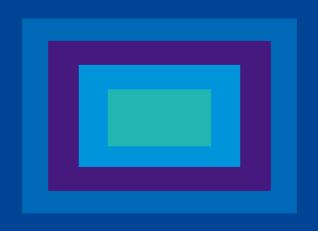
출처: 『글로벌 에티켓 1』 글 박동석, 출판사 꿈꾸는 꼬리연

인도네시아 Korea Desk

KPMG 인도네시아는 700여 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Korea Desk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 회계감사, 세무, 경영 컨설팅, 기업 인수합병 등 의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 교역뿐만 아니라 한류를 바탕으로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며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발전의 기회로 삼아 한국 기업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Korea Desk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ring the KPMG Story to life…!

2017 Partner KPMG Story Workshop 개최



KPMG Story는 우리는 왜 존재하는지(Purpose),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Value), 우리는 어떤 미래 모습을 그리는지(Vision), 우리는 어떻게 비전을 달성할 것인지(Strategy), 세상이 KPMG를 어떻게 인식하기를 바라는지(Promise)를 이야기 한다. 삼정KPMG의 파트너들은 우리의 행동과 의사결정에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인 KPMG Story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지난 6월에 열린 '2017 Partner KPMG Story Workshop'을 통해 살펴보자.



1. KPMG Story가 우리의 성공을 이끌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짐을 서명하는 파트너 모습
 2. KPMG Story 문화 정착을 강조하는 CEO 말씀 3, 4. KPMG Story를 업무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 할지에 대한 구체적 활동 논의 및 공유

'기업을 최고의 자리에 옮려 놓는 것,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다른 기업과 차별화 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직문화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힘인 KPMG Story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지난 6월 1일 삼정KPMG의 파트너를 대상으로 'KPMG Story Workshop'을 진행했다. 모든 구성원들이 KPMG Story 중심의 조직문화를 구축해 갈 수 있도록 리더들이 먼저 KPMG Story의 리더가 되어 사고하고 행동하며, 구성원들과 소통해야 한다.

이번 'Partner KPMG Story Workshop'에서는 그동안 이해하고 있던 KPMG Story가 파트너 한 명 한 명 개인에게 어떤 의미이고, 리더로서 KPMG Story를 내재화 시킬 수 있는 Change Champion이 되기 위해 다시 한번 KPMG Story의 의미를 새겨 봤다. 또, 법인에서 진행한 내재화 활동을 살펴보고, 향후 내재화 단계별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파트너들은 Awareness와 Understanding 단계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KPMG Story를 설명하고 성공 사례를 더욱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시간들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Engagement 및 Sustaining 단계를 달성해야 한다고 의견을 공유했다.

파트너가 말하는 '나에게 KPMG Story는 000이다!'

철학

Professional로서의 존재의 의미 및 그로 인한 판단기준을 제시해 준다.

IM3 남상민 상무

KPMG 파트너로서 항상 추구해야 하는 모범규준

바람직한 전문가적 판단과 행동을 유도하여 조직과 개인의 건강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IM1 변영훈 전무

거울

자신을 비추어 성찰하는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TAX 최정욱 부대표

새벽길

귀차니즘과 냉소를 털고 입으로 말하고 또 행동으로 옮길 때 내 몸과 마음을 신선한 기운으로 채우고 더 많고 좋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몽골법인 장현수 전무

스크램블 방식

왜냐하면, 서로 장점을 합쳐야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ICE1 민성진 상무

전문가로서의 인생 그 자체

존재의 이유와 가치, 그리고 이를 추구해 가는 과정과 결과까지를 아우르는 것이다.

TP 강길원 전무

나침반

내가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무엇'을 위해 또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울 때 꺼내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도구이다.

MCS1 장지수 전무

네비게이션

조직과 나의 목표와 경로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때문!

CM 신장훈 전무

쓰고 있는 장편소설

나의 일상에 내재화해서 삶의 조각을 맞춰가는 것 이기에!

Global Tax 이성우 상무

일상 생활

KPMG Story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나의 철학들이 직장 뿐만 아니라, 가정 생활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SCG1 이동석 전무

한국어(한국어, 훈민정음, 한글...)

우리 각자의 생각을 서로 통일할 때 가장 필수적인 도구,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기에!

ITC 심충섭 전무

고민해결사

우리의 일과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의사결정들의 연속입니다. KPMG Story는 우리에게 명확한 원칙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매우 수월해 졌고, 불필요한 고민이 줄어 들었습니다.

BD&Markets 신경철 부대표

새해 첫 날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태양

일출을 보고 새해 소망과 계획을 떠올리게 되는 것처럼, KPMG Story는 나의 직업적 삶의 지표이다.

IGH본부 임근구 전무

쉼표

잠시 호흡하며 돌아보고 준비할 시간을 주기 때문이다.

Deal Advisory1 하병제 부대표

정당한 공기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는 존재이기에!

JP 김철 전무

초심을 상기하는 장치

일상에 치여 잊고 있던 나의 이상과 목표를 떠올려주기 때문이다.

Deal Advisory5 김이동 상무

현법

실생활에서 가치들이 충돌할 때 어떠한 가치를 우선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기에!

RCS 양현석 상무

등대

어두운 한밤에 어디로 내가 향해야 하는 지를 알려준다.

CM 이종우 상무

기쁘고, 행복하다! 일과 삶을 조화를 이룬 삼정인 스토리

삼정KPMG는 임직원들이 동료 혹은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일과 삶의 조화를 이를 수 있도록 Benefits Program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한 날에 부모님에게 선물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모님을 뵙니다', 타 본부원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식사비용을 지원하는 '삼삼오오'로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낸 삼정인들의 스토리에 귀 기울여 본다.

부모님을 뵙니다

어머니 팔순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건넨 과일바구니!

이병훈 이사(Actuaries)

어머님의 팔순 생신을 맞이해서 누님들과 함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고민한 결과, 즐거운 가족 여행과 맛있는 저녁 식사로 생신 파티를 준비하기로 했고, 계획을 세우면서 예약 등 준비를 하던 중에 '부모님을 뵙니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야, 과일바구니를 전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어머님 생신에 맞춰 과일바구니를 선물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어머님도 처음 받아보는 과일바구니에 많이 기뻐하셨고, 과일 또한 너무 맛있었어요.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일도 많아지고 신경 쓸 일이 많아 져 자칫 어머님께 소홀해질 수 있었는데, '부모님을 뵙니다'를 통해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하고 감사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삼정인들도 '부모님을 뵙니다' 등 Benefits Program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라고, 또 법인에서도 많은 직원에게 이러한 기회를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늘 소녀 같은 어머니,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이현수 Associate(TP본부)

'부모님을 뵙니다'를 통해 환갑을 맞으신 어머님께 자그마한 선물을 드릴 수 있었던 기쁨을 삼정KPMG 선배님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꽃바구니를 받으며 즐거워하시는 어머니를 뵈니 학생에서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어머니 환갑을 축하드릴 수 있게 된 기쁨과 함께 어느덧 환갑을 맞으셨다는 생각에 기쁨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맞은 시어머니의 첫 생신이자 환갑을 축하드리기 위해 바쁜 와중에서도 힘든 내색 없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준 저의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지금처럼 건강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는 간절한 바람과 함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어머니 환갑 축하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삼정KPMG는 임직원들의 Work & Life Balance 를 증진시키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기 위하여 가족, 동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부모님을 뵙니다', '아빠&엄마가 간다', '삼삼오오', 리무진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PPC 최희진 대리(heuijinchoi@kr.kpmg.com)에게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삼오오



첫 기말 시즌을 보낸 후 만난 우리들

김재연 Associate(ICE1본부)

삼삼오오를 평계 삼아 그동안 약속 정하기 힘들었던, 신입 회계사 연수 당시 같은 조였던 동기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즌이 시작됨과 동시에 쟁겨주지 못했던 동기들 생일을 축하해주는 자리로 시작하여 각자 다른 본부에서 첫 시즌을 보내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과 창피한 실수 등을 이야기하니 정말 오랜만에 연수 때로 돌아간 듯 실컷 웃고 즐겼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삼삼오오 프로그램을 다시 신청해서 이런 기회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삼정KPMG만의 복지 향상 프로그램들의 종류와 그 규모가 더욱 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성장을 그리는 동료들과 함께

김성태 S.Consultant(BCS-SIC본부)

스타트업 업무를 하다 보면 다양한 니즈를 가진 스타트업과 만나게 됩니다. M&A, 세무 및 회계, 심지어 관세 및 통상 문제까지 삼정KPMG에서 다루는 모든 분야에 대해 폭넓고 해박한 지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마다 각 본부의 실무자에게 도움과 자문을 구하곤 했습니다. 한번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했지만, 서로 각자의 업무에 집중하느라 일정을 맞춰 모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삼삼오오'를 기회 삼아 모두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근황도 이야기하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 계속 도와가며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우리가 바로 삼정KPMG의 미래!

이건주 Associate(Domestic Tax)

항상 본인 자리에서 묵묵히 일하는 동기들과의 만남은 언제라도 반갑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서로 만나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맑은 바 소임을 다하고 퇴근 후 다 같이 모여 맥주 한잔! 하는 그 기분은 삼정KPMG 구성원이 아니라면 느낄 수 없는 꿀맛일 겁니다. 동기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는 우리들은 삼정KPMG의 미래입니다. 서로에게 항상 힘이 되는 우리들은 삼정KPMG입니다. 앞으로도 '삼삼오오'를 통해 동기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NEWS

MONTHLY NEWS

삼정KPMG, 2017년 정기 파트너 인사 단행

삼정KPMG가 지난 6월 28일 파트너 승진 인사(7월 1일 정식 발령)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에서 2명의 부대표와 9명의 전무이사, 8명의 Equity Partner(상무이사), 19명의 Salary Partner(상무이사)가 승진됐다. 또 24명의 신임 파트너(상무이사)가 선임됐다.

삼정KPMG 김교태 CEO는 이번 정기 인사를 통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프로페셔널로서 전문성과 품질을 인정받는 조직이 될 것”이라며, “옳은 방법으로 옳은 일을 하자(Do the Right Thing in the Right Way)라는 슬로건과 함께 고객과 사회의 발전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 신임 부대표 승진 인터뷰



Deal Advisory 1 허병제 부대표

삼정KPMG 가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눈을 밟고 길을 걸을 때 함부로 걷지 마라. 오늘 내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니”라는 시구를 생각해 봅니다. 삼정KPMG Vision 2020의 여정에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앞에서 걷게 됨을 명심하고, 항상 바른 길로 똑바로 걸어서 함께 가는 분들의 소중한 걸음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D&Markets 신경철 부대표

항상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삼정KPMG 가족 여러분과 해외에서 근무 중인 Global Korea Practice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만큼 더욱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삼정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삼정KPMG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Vision 2020 달성을 앞장서겠습니다.

👥 삼정KPMG 파트너 승진 인사

전무이사



김진원
(DA1)



김하균
(IGH)



변재준
(IM3)



심충섭
(ITC)



오상범
(GT)



이동석
(SCG1)



이성태
(DT2)



이주한
(IM2)



최세홍
(IM2)

Equity Partner(상무이사)



김민규
(B&F2)



김철
(FSTax)



김태훈
(DA2)



남상민
(IM3)



박철성
(B&F3)



오해균
(CM)



이동석
(SCG1)



조규석
(DA1)

Salary Partner(상무이사)



강인혜 (ICE1) 계봉성 (FSTax) 고병준 (DA1) 김민수 (IA/FR) 김성현 (TAX) 김왕문 (B&F2) 김재연 (IM3) 나석환 (DT1) 박상옥 (IGH) 박현 (DA2)



서무성 (DA2) 신동준 (IM3) 이동근 (MCS2) 이성노 (B&F3) 이희정 (IA/FR) 조영환 (Actuaries) 조재박 (MCS1) 최이현 (ICE2) 현윤호 (JP)

신임 파트너(상무이사)



강정수 (IGH) 김성배 (IM2) 김유미 (DA5) 김의찬 (ICE2) 김정은 (JP) 김태주 (판세) 박관종 (CM) 박우성 (B&F3)



박원 (ITC) 신기진 (SCG1) 안창범 (ICE2) 원정준 (DA5) 유승희 (FSTax) 이준래 (MCS1) 전원표 (IM1) 정우철 (RCS)



정현진 (CM) 조상현 (GT) 조정래 (B&F1) 조형욱 (B&F2) 진형석 (DA4) 최상욱 (DA2) 최연석 (IM4) 황학순 (MCS1)

삼정KPMG, KICPA 제63회 정기총회 표창 수상

삼정KPMG가 지난 6월 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제63회 정기총회'에서 표창을 받았다. 공인회계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리나라 회계 및 외부감사제도의 발전과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함께 사무직원으로서 회계업계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 7명이 표창을 수상했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정대길 부대표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박용수 전무, 현승임 상무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하균 전무 ▲금융감독원장 한상일 전무 ▲한공회 회장 민홍길 상무, 김황환 이사가 표창을 받으며 법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여한 정대길 부대표는 "초심불망 마부작침(初心不忘 馬釜作針)의 마음자세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변함없이 노력하겠다"며 법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더욱 힘써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해운회사 위한 회계, 국제조세, 관세 및 내국세 분야 세미나' 개최

삼정KPMG는 지난 7월 6일 해운빌딩 한국선주협회 10층에서 '해운회사 대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를 통해 주요 해운사의 재무담당자에게 각 분야의 전문가가 회계와 국제조세, 관세 및 내국세 분야 등의 주요 이슈사항에 대해 제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IFRS 15/16 등 개정 내용과 그 영향, BEPS/이전 가격 등 최근 국제조세 이슈, 관세 및 외국환거래, 그리고 해운업 관련 내국세법상 주요 이슈사항 등에 대해 살펴봤다.

* Contact: IM2(Industrial Markets2)본부 조자영 부대표
jjo@kr.kpmg.com

삼정KPMG,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간담회 개최

삼정KPMG는 지난 6월 23일,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KPMG 인тен시브 스타트업 서포트(KPMG Intensive Startup Support, KISS)에 최종 선정된 10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선정된 10개 스타트업은 핀테크, 사물인터넷, ICT 서비스, 바이오/헬스케어 등 다양한 산업에서 혁신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여러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장 잠재성 및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스타트업들은 자문을 담당할 각 LoB/Function 전문가들과 네트워킹 및 향후 프로그램 일정 및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삼정KPMG 스타트업지원센터 윤권현 상무는 "본 KISS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스타트업이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KISS 프로그램은 약 6개월에 걸쳐 KPMG 내부 전문가들의 자문으로 각 스타트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 Contact: 삼정KPMG 스타트업지원센터 리더 윤권현 상무
kyoon@kr.kpmg.com



‘글로벌 진출 기업의 국제조세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7월 7일, 삼정KPMG 본사 교육장에서 ‘글로벌 진출기업의 국제조세 대응전략 세미나’가 개최됐다. 본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삼정KPMG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공동 주관한 것으로, 글로벌 전문 후보 기업 및 WORLD CLASS 300(WC300) 기업의 재무, 회계 등 국제조세 담당부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열렸다. 삼정KPMG 이전가격본부 백승목 상무가 이전가격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 사항을, Global Tax본부의 이성욱 상무는 국제 조세에 대한 동향 및 방안에 대해, ITC본부 김태주 상무는 한국 기업의 주요 진출국인 중국, 베트남 등의 관세 조사 및 외투기업 주요 관세 이슈 등에 대해 짚어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 Contact: 이전가격본부 백승목 상무 sbaek@kr.kpmg.com

삼정KPMG, ‘호주 펀테크 세미나’에서 글로벌 펀테크 동향 및 방안 모색해

지난 6월 8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주한 호주대사관 무역 투자대표부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정부의 공동주최로 ‘호주 펀테크 세미나 2017 서울’ 세미나가 개최됐다. 호주 시드니 진출 및 투자에 관심이 있는 국내 펀테크 기업, 협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삼정KPMG 펀테크 리더인 조재박 상무가 연사로 참석하여 글로벌 펀테크 동향에 대해 살펴보고, 호주 펀테크 현황 및 발전 가능성을 내다봤다.

* Contact: MCS1 조재박 상무 jaeparkjo@kr.kpmg.com

NOTICE

▶ ‘IFRS15 새 수익 기준서 도입 대응전략 세미나’

- 주제 : 새 기준서 IFRS15의 산업별 영향 및 대응 전략 모색
- 일시 : 2017년 7월 13일(목) 14:00 ~ 17:30
- 장소 : 서울시 종로 을지로 30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
- 문의 : 박혜경 부정(BD&Markets)
hyekyungpark@kr.kpmg.com / 02-2112-0035
장서윤 위원(BD&Markets)
seoyoonjang@kr.kpmg.com / 02-2112-3220



사랑나눔

‘희망의 집짓기’ 봉사 진행

삼정KPMG는 6월 16일 서울시 성동구 성수2가 1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해비타트와 함께 ‘희망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벽지 제거, 단열 작업, 천장 도배, 환경 페인트 도장, 장판 교체, 천장 보수 및 벽면 도배 작업, 내부 정리 등을 작업했다. 한 임직원은 “소외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작게나마 도움이 됐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삼정KPMG는 주거환경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해비타트와 2013년 3월 재능 나눔 협약식을 통하여 공동성장을 지원하며 매년 소외계층 지원에 동참하고 있다. 또한, 삼정KPMG는 지난 6월 24일 제과제빵 봉사활동을 전개해,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만든 빵과 쿠키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7월에는 ‘꿈을 Dream Project’로 자라나는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회계사란 직업에 대해 소개하는 재능기부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The KPMG Story

The KPMG Story는 KPMG가 왜 존재하고(Purpose) 어떤 가치 속에 일하는지(Value), 무엇을 지향하고(Vision) 이를 위해 어떻게 나아가며(Strategy) 그 과정 속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Promise)를 명확히 보여주는, 일상 행동과 중요한 의사결정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다.



This is KPMG and
this is our story

| This is why we're here

Inspiring Confidence

Empowering Change

신뢰를 부여하고

세상의 변화를 주도한다

This is our Purpose

| This is what we believe in

- Lead by example 솔선수범

- Work together 협업

- Respect the individual 존중

- Seek the facts and provide insight 통찰력

- Communicate openly and honestly 소통

- Improve communities 공헌

- Act with integrity 정직성실

These are our Values

| This is what we want to be

The Clear Choice:

- Our people are extraordinary

- Our clients see a difference in us

- The public trusts us

This is our Vision

| This is how we'll get there

We will:

- Drive a relentless focus on quality and excellent service
- Take a long-term, sustainable view
- Act as a multi-disciplinary firm, collaborating seamlessly
- Invest together in our chosen global growth priorities
- Continuously improve quality, consistency and efficiency
- Maintain a passionate focus on our clients
- Deploy globally our highly talented people
- Bring insights and innovative ideas
- Build public trust

This is our Strategy

| This is how we want the world to see us

With passion and purpose, we work shoulder-to-shoulder with you, integrating innovative approaches and deep expertise to deliver real results.

This is our Promise

삼정 **KPMG**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Channel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Channel을 읽은 후의 느낌과 다양한 생각을 메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시는 분 또는 Channel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mail : kr-fmchannel@kr.kpmg.com Tel : 02-2112-7567

© 2017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